

등록금협상 일부 타결

학교·학생측 의견 타진, 주요사항 합의못바

양캠퍼스는 6차례의 등록금 협상을 통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서울16차례의 협상】 진행되면서 학생측 요구인에 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10시 부총장실에서 가진 제6차 등록금협상에서는 특히 거단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도 참석하여 문제점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요구인이 받아들여졌다.

현재 합의점이 이르기 못한 사항은 학생측의 등록금13% 인상요구의 신인상 교양교과제 관련문제, 재단전입금의 등록금인상률 이상 확보, 원리대

공간 확보 등이며 이들 사항은 오는 3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올해 교육재정확보부담과 관련된 전체학생대표대회의 참가한 대표와 각 단위의 집행부까지 포괄하는 제1차 전체학생 확대집회의의를 지난 25일 도시간 시정각실에서 갖고 이후 교육재정확보부담의 방향성에 관한 건부담의 의견을 들었다.

관계할 부총학생회장은 토론 시간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예 비해 재단입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교육복지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시한 13%

수원, 단수로 학생들 생활 불편

가뭄 영향 지하수 부족이 원인

수원캠퍼스내의 신원 단수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 건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급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예지원은 마침내 계속되는 단수로 원생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몇달간의 가뭄으로 관수구를 위해 야간에 물을 도어주기 때문에 현재 야간급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관리과는 "하루 9백50톤의 급수를 위해 현재 20일후엔 물공급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매고 총장 방문

미국 시카고 소재 지매고 North Park College의 데이비드 호너 총장부부가 오는 4월 9일 본교를 방문한다.

호너 총장의 이번 방문은 양

장학규정 개정안 발표

우수·모범 A-B구분 삭제 신청절차 간소화

본교 학생회는 장학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신청 절차에 있어서 학과장, 교과의 장을 거쳐 소속대학에 장학금을 신청하던 종래의 절차에 비해 신청서와 장학생 명부를 학생에게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아리 관련 모범장학 신청자는 동아리지도 교수 및 소속학생의 추천을

장학규정 개정안 발표

우수·모범 A-B구분 삭제 신청절차 간소화

본교 학생회는 장학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신청 절차에 있어서 학과장, 교과의 장을 거쳐 소속대학에 장학금을 신청하던 종래의 절차에 비해 신청서와 장학생 명부를 학생에게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아리 관련 모범장학 신청자는 동아리지도 교수 및 소속학생의 추천을

동부·용성총련 대의원대회 의장선출, 총노선 등 논의

제7기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동총련)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27일 오전10시 전국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93년의 삶을 위하여'란 주제로 92년과 93년, 동총련 총노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후, 7기 의장과 총학생회장, 부·역·4)의장과 전운호(본교 총학생회장, 시카고 4)임시부의장에 대한 정식 인선이 있었다.

한편, 제7기 '용성생남지구 동총련연합(이하 용성총련) 대의원대회'는 오는 9월, 10월 양일간 용인대학에서 열린다.

노조 정기총회 개최

결산보고·사업계획 확정지어

본교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1시 '93년도 정기총회'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갖고 9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와 93년 사업계획 심의를 가졌다.

이번 총회는 서울·수원조합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1부에서는 이충훈 사무부장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집행위원 대의원선거가 있었고 2부에서는 권영환 조위원장의 주재로 9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9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승인,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조는 조합원 권익향상과



제25대 총학생회 출범

서울-1일 노천극장 수원-오늘 혁명광장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오는 4월1일 오후3시 노천극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 출범식은 그간 진행되었던 학원민주화투쟁을 평가하고 이후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장소로서 행사내용도 이에 맞춰질 예정이다.

첫막선으로 시정되는 출범식은 1부에서 총학이 발표하고 있는 '93의방향' 운동의 여러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후 사업방향성을 공유하는 행사로서, 김봉아, 중앙운영위원회소개, '속·조속노력' 운동 등이 있을 예정이다.

2부 행사로는 복학생인생의 한달 생활체험기 낭독과 정경대 '새내기들의 향방'이 있는 후 경희인 대학들과 함께 폐막식이 끝나게 된다.

이날 출범식과 더불어 복학생 시공식과 총학생회 사진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

제25대 총학생회는 93년 대 중사업을 학원민주화투쟁에 역점을 두고 결의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지난 24

제25대 총학생회 출범

서울-1일 노천극장 수원-오늘 혁명광장

이날 출범식과 더불어 복학생 시공식과 총학생회 사진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

제25대 총학생회는 93년 대 중사업을 학원민주화투쟁에 역점을 두고 결의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지난 24

전국 한의대 일제히 총과업 서명운동·공청회 등 여론조성

한국의과대학 학생들의 '약사법 철폐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교 한의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한의대학생들은 지난 22일 일제히 총과업을 결의하고 약사법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한의과대학 졸업생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난 22일 단서준성에 들어갔고 지난 26일에는 본교 4년생 1백50여명이 민중당사에서 총아준성에 들입하는 등 투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약사협회는 약사법정규적 저지를 위한 행정 소송과 민원법원합의를 준비중이고 전국한의과대학연합도 공청회 등의 사업을 진행시키며 앞으로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자대·외대 대의원장 선거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5시30분 자연과학대와 외국어대의 대의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등록은 선거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총대의원회에서 받으며 후보자격을 4학기이상 등록을 마친 각단체 대의원으로 각 단체 대의원 정수 1/4

42기 수습기자 2차모집

대학주보는 '새내기'를 환영합니다

1. 자격: 각 단과대학 1학년 신입생
 2. 모집부문: 취재기자, 문화기자, 사진기자
 3. 모집기간: 93년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4. 모집장소: 93년 4월8일 오후5시
 5. 원서배부 및 접수: 대학원진학사 장학금지급
- 양 캠퍼스 본사 편집실
 6. 전형일시: 서울-4월7일 오후8시 수원-4월8일 오후5시30분
 7. 기 타: 장학금지급, 컴퓨터 실습, 취재·편집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추진 대학원진학사 장학금지급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3)

가고싶은 길은 가야한다



길없는 길에서 방황하는 70년대
 가야할 길로 밀려가는 80년대
 가고싶은 길에 서있는 90년대

70년대의 막걸리와 퐁키다
 80년대의 화염병과 차가운 소주
 90년대의 뿔총과 컴퓨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기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곳은
 대학주보입니다

아침이슬에 흠뻑서며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학주보사